

‘BTS-아미’활동을 통한 자기존중감 변화에 관한 현상학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hanges of self-esteem through 'BTS-A.R.M.Y.' activities

조명현¹, 최정한², 김요완^{3*}

Myoung-Hyoun Cho¹, Jung-Han Choi², Yo-Wan Kim^{3*}

요 약

본 연구는 BTS-아미 활동이 자기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준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BTS-아미 활동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참여자인 아미 5명을 심층면접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삼각검증을 하였고,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연구결과, 39개의 범주, 12개의 하위영역, 5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하면서, 자기존중감, 타인존중감, 삶과 실존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현상을 경험하면서, 삶을 공유하며 연결됨, 공감·위로·용기·희망을 경험하였고, 모델링을 경험하며 BTS, 아미와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중요한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 BTS-아미, 사회적 연결, 공감, 자기존중감, 실존적 책임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BTS-A.R.M.Y. activity on psychological changes such as self-esteem. For this purpose, a research question, ‘How self-esteem has been changed by BTS-A.R.M.Y. activities?’ was raised, and the five research-participants were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 which was then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reliability and validity, triangular verification was conducted on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is study, and measures were taken to maintain the truth value, neutrality, and consistency. As a result, 39 categories, 12 sub-areas, and 5 areas were derived. Participants experienced self-esteem, respect for others, and responsibility for life and existence through BTS and A.R.M.Y.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se resulting phenomena, they experienced sharing and connecting life, felt empathy, comfort, courage and hope, and modeling in interaction with BTS and A.R.M.Y.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to treat empathy as an important topic in order to continue the ‘K-Wave’ were suggested,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revealed with a further study proposal.

1 Seoyeong University Counselling Center, Paju, Korea [Visiting counselor]

e-mail: mhcho23@naver.com

2 Department of Applied Music,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jhchoi@iscu.ac.kr

3 Department of Family Coaching & Counseling,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ociate professor]

e-mail: kywan@isc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8, 2021), Review Result(1st: November 24, 2021), Accepted(December 10, 2021), Published(December 31,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Keyword : BTS-A.R.M.Y., Social connection, Empathy, Self-esteem, Existential responsibility

1. 서론

‘BTS’, ‘BLACKPINK’,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 영향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BTS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류(韓流)를 전 세계에 미치게 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문화 교류의 현상을 창출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1].

BTS와 팬클럽인 아미(A.R.M.Y., 이하 ‘아미’라고 함)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한류를 지속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BTS와 아미가 추구하는 가치관, 즉 자기와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고려할 때 [2], BTS와 아미에 대한 연구를 한류 확장에만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면, BTS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희석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BTS와 아미에 대한 연구는 한류의 유지와 확장 측면에 집중되어, BTS 인기의 원동력이 된 마케팅 요소에 대한 연구 [3][4], 팬덤 형성에 대한 연구 [5], BTS의 노래를 활용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뤄왔다 [6].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한류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BTS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BTS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즉, 아미의 일원을 직접 심층면접하여, BTS와 아미로서의 활동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이 BTS와 아미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특히 BTS-아미 활동이 자기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준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자기(self, 이하 ‘self’라고 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성격,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이다 [7]. 자기존중감은 건강한 self가 형성될 때 가능하며, 건강한 self는 부모와 같은 주 양육자와 따뜻하고 친밀한 경험을 하는 관계인 공생(symbiosis) 관계를 경험해야 형성될 수 있다. 즉, 중요한 대상과 연결되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할 때, 타인(others)으로부터 self를 분화시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들에 신뢰감을 느끼는 자기존중감이 형성된다 [8]. 자기존중감이 형성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반응과 행동, 생각과 감정, 기대와 열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뢰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실존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타인의 것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7].

자기존중감 향상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심리학의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과거에는 자기존중감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부모 등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강조되었지만 [8], 최근의 연구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자기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전 생애발

달 과정에서, 타인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자기존중감 수준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이 자기존중감의 연구들과 이들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9]. 또한, 대중문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발달이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좋아하는 만화영화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때 [10], 팬덤의 대상과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을 했을 때에도 자기존중감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다 [11]. BTS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K-pop이 자국 팬들의 행복, 자기존중감, 사회적 연결성 등의 긍정적인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있다 [12]. 또한, 미국에서 소외당하는 아시아계 성소수자와 성정체감 갈등자(LGBTQ+)들이 K-pop을 통해서 자기정체감과 존중감을 해치는 외부요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는 긍정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13]. 이러한 연구는 자기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미디어와 SNS를 통한 팬덤, 팬들 간의 연결 등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BTS와 같은 K-pop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pop의 중심에 있는 BTS, 그리고 팬덤인 아미 활동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TS-아미 활동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아미를 심층면접하고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체계적인 분석과정과 절차를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통합하여, 경험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 본 연구는 Giorgi가 제시한 분석과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전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문장을 기준으로 해체하여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각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명명하며 범주를 구성하였고, 도출된 범주를 분류하고 유목화, 통합하여 하위영역과 영역을 도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15].

연구자는 총 3명으로, 연구책임자는 질적연구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고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상담전문가이며 대학교 부교수이다. 공동연구자 1명은 실용음악과에 재직하며 국내외 실용음악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 조교수이고, 다른 공동연구자 1명은 상담및임상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전문가로 활동하는 객원 상담원이다.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으로, 연구주제에 맞는 경험을 진술할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해, ‘BTS-아미 활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미’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적합한 참여자를 연령대별로 구별하여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설명한 표이다.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참여자	연령	성별	아미가 된 시기	직업	BTS 팬이 된 계기
1	45	여	2017년(41세)	복지행정사	2017년 AMA 공연 후 관심
2	23	여	2015년(17세)	대학생	무대가 멋있다고 느낌
3	23	여	2013년(15세)	대학생	데뷔곡 No More Dream 가사에 공감
4	52	여	2017년(49세)	강사	Top Social Artist 수상에 호기심
5	48	여	2018년(45세)	강사	해외에서의 인기에 호기심

심층면접 전 과정으로,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과 취지, 심층면접 질문, 심층면접 방식과 과정, 비밀보장 방식, 연구참여의 철회 권한, 연구참여의 사례, 연구참여로 인한 위험요소, 연구와 분석을 위한 녹음, 논문예의 출간 등이 포함된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면으로 서명을 받았다. 특히, 심층면접은 연구주제와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문제인 ‘BTS-아미 활동을 통해 자기 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한 심층면접 질문인 ‘어떤 계기로 아미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아미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미 활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를 연구참여동의서에 기록하여 사전에 제시하였고 심층면접 시작 전에 이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윤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으로, 먼저 연구자 3인이 연구제목, 연구문제, 심층면접 질문문항을 선정하여 파일럿(pilot) 면접을 실시함과 동시에 삼각측정을 위한 전문가 2인에게 질문문항이 포함된 연구참여동의서를 검토받았다. 파일럿 면접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문항을 수정하였고,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별로 더 구체화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하였고, 60~90분의 심층면접 내용을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록하였다. 심층면접 직후, 연구자 3인이 포화가 될 때까지 분석과 범주도출을 합의하면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시 참여자들의 진술을 요약하며 연구자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심층면접 후 의미단위로 명명한 범주명을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여주어 참여자의 진술의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며 질적연구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16].

분석 과정으로, 참여자가 표현한 본래의 의미를 지닌 단위, 즉 문장 단위로 전사한 녹취록을 해체하여 개념화하였다. 이렇게 개념화한 의미 단위, 즉 범주를 아미 활동을 통한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적 본질이 드러나도록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그 후,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의미와 핵심 내용을 찾아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하여 유목화하면서 하위영역과 영역을 도출하였다. 전사한 면담 내용과 범주가 잘못 연결되거나 분류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연구원끼리 교차 검증하여 가장 적합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여 질적연구의 중립성(neutrality)을 지키려고 하였다 [16]. 반복된 검증을 통해 심리학적 변형으로 이뤄진 범

주를 도출하였고 하위영역을 분류하여 자기존중감에 대한 심리적 변화 경험의 구조가 드러나도록 구성하여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도출한 범주를 분류, 유목화, 통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하위영역과 영역의 내용을 삼각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 수정하였고 참여자들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질적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주제별로 분류하여, 범주 39개, 12개의 하위영역, 5개의 영역을 최종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5명의 참여자를 심층면접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후, 39개의 범주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12개의 하위영역으로 범주화하였고, 이를 5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BTS를 접하게 된 동기’에는 ‘BTS에게 매력을 느낌’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BTS, 아미와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BTS와 아미와의 상호작용을 한 현상과 관련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삶을 공유하며 연결됨을 느낌’, ‘공감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함’, ‘모델링(modeling)’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영역부터는 BTS, 아미를 경험한 후의 변화를 보인 현상과 관련한 영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자기존중감 형성’으로, 여기에는 ‘자기를 성찰함’, ‘자기를 수용, 사랑의 마음 생김’,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 ‘자기를 가치롭게 여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적용’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타인존중감 형성’으로,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 욕구’,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일어남’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실존적 책임 경험’으로, 여기에는 ‘실존적 책임을 경험’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범주, 하위영역, 영역의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는 도출한 범주와 하위영역, 영역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표 2] 참여자들의 자기존중감의 변화

[Table 2] Changes in self-esteem of Participants

39개의 범주	하위영역	영역
좋아진 계기	BTS에게 매력을 느낌	BTS를 접하게 된 동기
멤버에게 매료됨		
BTS의 특별함		
자신과 동일시		
삶의 활력소	삶을 공유하며 연결됨을 느낌	BTS,아미와의 상호작용
삶의 일부		
사랑,의지,신뢰,행복,힘을 주는 대상을 경험		

메시지에 긍정적 영향받음			
용기를 얻음			
멤버의 모습에 위로와 감동 경험	공감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함		
아미에게서 위로 받음			
메시지에서 위로, 용기, 희망을 경험			
노력하는 모습에 모델링			
성숙함을 모델링	모델링		
삶의 주도성에 대한 모델링			
삶의 자세에 대한 모델링			
자기수용에 대한 모델링			
선한 영향력에 대한 모델링			
자기를 자각하고 반성함		자기를 성찰함	
리얼 원트(real want)을 알게 됨			
자기수용과 사랑에 대한 마음 생김	자기를 수용, 사랑의 마음 생김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됨			
동기가 생김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	자기존중감 형성	
정서의 변화를 경험함			
이타적 자존감 형성	자기를 가치롭게 여김		
자신감과 열정 생김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낌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자신에게 적용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적용		
긍정적 대처 행동으로 옮김			
소통을 함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 욕구	타인존중감 형성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관계 욕구 생김			
으샤으샤 서로 응원을 함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일어남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음			
선행을 실천함			
선순환 경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음	실존적 책임을 경험	실존적 책임 경험	
스스로 돌보는 삶			
삶의 작은 성취에 대한 행복을 인식			
지금-여기의 삶을 살려고 함			

영역, 하위영역, 범주를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도출한 범주의 근거가 되는 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BTS를 접하게 된 동기

본 영역에는 ‘BTS에게 매력을 느낌’의 하위영역이 있다.

3.1.1. BTS에게 매력을 느낌

참여자들은 BTS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멤버에게 매료된 과정, BTS의 특별함을 표현하였다.

방탄 멤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미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겸손

한 마음을 가진 멤버들 하나하나가 다...; 음... 되게 마음에 들고 개성 있고 선풍이 느껴졌습니다.
[참여자 1]

3.2. BTS, 아미와의 상호작용

본 영역은 BTS와 아미를 경험한 후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즉 BTS, 아미와의 상호작용 현상에 관한 영역이다. 본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삶을 공유하며 연결됨을 느낌', '공감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함', '모델링'이 있다.

3.2.1. 삶을 공유하고 연결됨을 느낌

'삶을 공유하고 연결됨을 느낌'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BTS 멤버를 자신과 동일시하였고,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하는 것을 삶의 활력소 또는 삶의 일부로 경험하였다. 특히, BTS의 메시지에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BTS와 아미를 사랑, 의지, 신뢰, 행복, 힘을 주는 대상으로 경험하였다.

저는 그냥 이 시대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어떤 계속 글로벌한 인기를 받고 있고, 걸출한 청년들, 위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걸출한 멘토들하고 그냥 같은 시대, 같은 세계를 살면서 그들이 계속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그런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3.2.2. 공감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멤버의 모습에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아미에게서 위로받았으며, BTS의 메시지에서 위로, 용기, 희망을 경험하였다.

희망을 얻고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근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고 희망을 받았다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이들의 노래, 노래 가사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냥 평범해요, 웨이트리스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마스크 쓰고 일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가 올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뭉클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뮤직비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거 같애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할까요?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3.2.3. 모델링

참여자들은 BTS 멤버들의 노력하는 모습, 성숙함, 삶의 주도성, 삶의 자세, 자기수용, 선한 영향력에 대해 모델링을 하였다.

그냥 그런 것도 저도 봐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얘기했던 앨범 안 낼 때 내가 ‘뭐 하고 있지?’ 궁금할 때쯤 개네들이 커요. 아무나. 그럼 ‘저 요즘에 뭐 해요, 저는 요즘에 뭐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요즘에 스케줄을 했어요, 뭐 했느냐, 춤 연습하고, 가사 쓰고, 오늘은 미술관 가고,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냥 비공식으로 했는데 그 안에, 그 안에 애네들이 그냥 뭔가가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돌을 만들 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나는 ‘와! 오늘 놀았는데. 와 애네 참 진짜 열심히 한다. 뭐 하니? 너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여자 4]

3.3. 자기존중감 경험

본 영역부터는 BTS, 아미를 경험한 후의 결과로서, 심리적 변화 결과의 현상에 관한 영역이다. 본 영역에 포함된 하위영역은 ‘자기를 성찰함’, ‘자기를 수용, 사랑의 마음 생김’,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 ‘자기를 가치롭게 여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적용’이 있다.

3.3.1. 자기를 성찰함

‘자기를 성찰함’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한 후, 자기를 자각하고 반성하였으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리얼 원트(real want)를 알게 되었다.

‘No More Dream’인데...; 이게 가사가 되게 뭐라고 하지?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되게 약간 그 당시에 그런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꿈이 정말 네가 원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의 가사였거든요. 제가 그때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좀 네...; 그때 약간 그런 게, 좀 이거...; 약간, 지금 내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참여자 3]

3.3.2. 자기를 수용, 사랑의 마음 생김

참여자들은 자기수용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제 자신을 제가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거는 결국엔 나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어! 나를 조금 더 아껴줘야겠다. 사랑해야겠다, 비록 네가 과거에 실수는 했지만 더이상 자책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이 쓰게 됐어요. [참여자 1]

3.3.3. 긍정적인 정서의 변화

참여자들은 삶에 동기가 생기고,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등, 정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개인적으로 뭔가 화,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좀 뭔가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화도 많이 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되게 좀 그랬었는데, 전보다 확실히 그냥 다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래서인지 뭔가, 그냥, 표정부터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좀... [참여자 2]

3.3.4. 자기를 가치롭게 여김

참여자들은 BTS를 경험하고 아미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 자존감을 형성하였고, 자신감과 열정이 생겼으며,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분명히 한 사람인 거, 한 그룹인 거는 맞고. 저도 그래서 이제 아미 이름이 아니라 그 제가 아미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 하고 싶은데? 라고 했으면 좋은 일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떻게... 저의 존재의 의미가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분 좋고, 나도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게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존재 의미이잖아요. [참여자 5]

3.3.5.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적용

참여자는 자신에 대한 리더십, 참여자가 말한 용어로 ‘셀프 리더십’을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였고, 긍정적인 대처 행동을 하게 되었다.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더 이상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제 자신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괜찮다라고... 네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참여자 1]

3.4. 타인존중감 경험

본 영역은 참여자들이 자기존중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타인존중감을 형성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본 영역에 포함된 하위영역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 욕구’,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일어남’이 있다.

3.4.1.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 욕구

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한 후, 타인과 소통을 하고자 하였고, 타인에 대한 존중

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경험하였다.

뭔가 그냥 그... 7명이 다 같이 있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그 사람들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너무 부럽잖아요. (중략)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제가 힘든 것도 싫고 그냥 어...; 그냥. 그냥 마음이 딱 열렸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마음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중략) 뭔가 저도 중요한 만큼 남도 되게 중요하고, 딱 뭔가 저 혼자만 딱 갇혔었던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런 게 다 좀 틀린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2]

3.4.2.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일어남

참여자들은 아미들과 서로 ‘으샤으샤’ 응원을 하였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행을 실천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선순환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그런 생각 같은 거를 글로 옮기면은 또 다른 아미들이 거기에 공감도 해주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용기 내라고, 힘도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아미라는 이름으로 서로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3.5. 실존적 책임 경험

본 영역은 자기존중감과 타인존중감을 경험하며, 삶과 실존에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며 지금-여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는 삶의 태도와 관련한 영역이다. 본 영역에는 ‘실존적 책임을 경험’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다.

3.5.1. 실존적 책임을 경험

참여자들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고,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삶의 작은 성취에 대한 행복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충실해지려는, 지금-여기의 삶을 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그런 걸 찾는 거 보고, ‘그치! 나는 뭐 자꾸 이러면 안 되지, 더 부정적이 되지, 여기서 네가 기회를 찾아야지, 자꾸 위기를 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소확행 뭘냐?’ 그런 거를 자꾸 나보고 생각하라고 만들죠. 그럴 수 있는 중에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찾아야지, 계속 ‘불안하다. 불안하다. 안 좋은 생각만 하면은 아무것도 지금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계끔 하죠. [참여자 4]

4. 결론

본 연구는 BTS-아미 활동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TS-아미 활동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5명의 아미를 연구참여자로 심층면접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한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한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존중감을 경험하였다. 즉, 자기 성찰, 긍정적인 정서변화, 자기수용, 사랑의 마음 형성, 자기 가치의 인식,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자기에게 적용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존중감이 형성되었는데,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관계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선행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등의 선순환을 경험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존적인 책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은 BTS와 아미 활동을 통해 단순히 아이돌(idol)에 대한 팬덤을 형성하여 즐거움과 좋아함을 추구하며 감정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기존중감을 형성하고 타인존중감을 경험하며, 삶에 대한 실존적 책임을 경험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인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 좋아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때, 팬덤의 대상과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했을 때, K-pop을 경험했을 때, 자기존중감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10-13]. 참여자들의 자기존중감의 변화를 통해 타인과 사회에 선행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이루는 양상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팬덤을 형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었던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이 BTS-아미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기에 위와 같은 자기존중감, 타인존중감, 삶과 실존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현상이었다. 참여자들은 삶을 공유하며 사회적 연결을 느끼고 이를 통해 공감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였으며 BTS와 아미들에게 모델링을 경험하였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의 현상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BTS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멤버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가족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BTS와 참여자 간, 아미와 참여자 간에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통해 가능했다.

BTS는 단순히 노래를 하는 아이돌 가수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플랫폼(platform)과 각종 SNS를 통해 멤버들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좌절하는 모습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노래와 뮤직 비디오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신과 삶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달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BTS와 아미 활동이 삶의 일부가 되면서 활력소를 경험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BTS 멤버, 아미들과 삶을 공유하고 연결되면서, 이들에게서 가족같은 느낌, 예를 들면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고, 행복과 힘을 주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에게 BTS 멤버와 아미들은 바로 자신이었으며, 동시에 가족이었다. BTS와 아미를 통해 참여자들이 사랑과 신뢰, 행복과 힘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열망이 충족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자기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17]. 이러한 상호작용 현상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존중감, 타인존중감, 삶과 실존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게 하였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BTS와 아미들을 통해 공감, 위로, 용기, 희망을 경험하였다. 즉, 좌절되고 무기력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BTS를 접하고 아미들과 관계를 하면서 공감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용기를 얻고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는 현상을 보였다.

공감은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 향상의 중요한 선행변인이 된다 [18-20]. BTS의 노랫말과 뮤직 비디오, SNS를 통한 일상의 삶에서의 메시지는 참여자들을 흥분시키거나 감정을 발산하게 하기보다, 참여자들의 삶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려고 하며 위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심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현상을 보였다. 팬들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야 하는 대상으로 관계하지 않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알아차리며 함께 하려는 BTS 멤버들의 행동과 아미들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참여자들의 자기존중감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현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BTS를 접하고 아미 활동을 하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 삶과 실존에 대한 태도를 모델링하는 현상을 보였다. 모델의 대상은 BTS 멤버였고 아미들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들을 모델링하며 영향을 받고 자기존중감이 변한 것처럼, 자신도 누구에게인가 모델로서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수용의 모습과 성숙함을, 타인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삶과 실존에 대해서는 삶에 주도성을 갖는 모습, 긍정적인 삶의 자세,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BTS-아미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존중감, 타인존중감, 삶과 실존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BTS에 대한 팬덤의 중요한 가치이며 원동력이 됨을 시사한다. 즉, BTS는 팬들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넘어, 팬들의 심리적 성장과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심리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BTS 멤버, 아미들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였으며, 공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BTS는 노랫말, 뮤직 비디오, SNS, 인터뷰 등에서 공감의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하였는데, 이러한 팬들에게 공감을 경험시키는 시도는 팬들의 심리적 성장과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한류의 지속이나 아이돌의 마케팅

측면에 있어, 팬들에 대한 공감을 중요한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BTS와 아미들과 연결되면서 상호작용할 때에, 중요한 수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와 유튜브, 일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등이었다. 팬데믹으로 일상적인 관계가 단절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서로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알아차리며 심리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현상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며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을 한 연구로서, 질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참여자를 심층면접하며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을 밝힌 연구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하위영역들을 변인으로 하여 양적연구를 후속으로 진행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현상을 개념화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2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자기존중감, 즉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BTS-아미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상호작용 현상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심층면접 과정에서 깊게 다루지 않은 BTS의 음악,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패션 등의 요소가 아미들의 심리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C. Lim, "Globalizing Korean studies: A methodological strategy learning from the K-Wave(Hallyu)", *Hanguk Munhwa*, no. 92, December 2020, pp. 333-353, doi: 10.22943/han.2020..92.011.
- [2] T. I. Chung, Y. N. Choi, Y. H. Kim, "The soft power effect of BTS", *Korea and Global Affairs*, vol. 5, no. 1, May 2021, pp. 51-76, doi: 10.22718/kg.2021.5.1.005.
- [3] M. N. Lee, J. H. Hong, "A study of spreading global fandom through social media - Analysis of tweets related to BT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vol. 19, February 2020, pp. 7-32, doi: 10.24174/jicc.2020.02.19.7.
- [4] J. S. Hwang, "Human branding of BTS: Cros-media strate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20, no. 3, September 2020, pp. 188-217, doi: 10.14696/jcs.2020.09.20.3.188.
- [5] J. W. Lie, "How does the social connectivity of social media build a fandom communit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TS fando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7, July 2021, pp. 1-12, doi: 10.5392/JKCA.2021.21.07.001.
- [6] Y. H. Kim, B. Yun, S. J. Kim, "Implications for school and education through popular song lyrics:

- Focusing on BTS lyric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2, June 2021, pp. 87-99, doi: 10.22251/jlcci.2021.21.12.87.
- [7] V. Satir, J. Banmen, J. Gerber, M. Gomori,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Science and Behavior Books, 2006.
- [8] M. S. Mahler, F. Pine, A.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 [9] M. A. Harris, U. Orth,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19, no. 6, December 2020, pp. 1459-1477, doi: 10.1037/pspp0000265.
- [10] S. Reysen, C. N. Plante, D. Chadborn, S. E. Roberts, K. C. Gerbas, “Intragroup helping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fandom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and well-being”, *Leisure/Loisir*, September 2021, pp. 1-25, doi: 10.1080/14927713.2021.1971553.
- [11] G. I. M. R. Bercero, M. N. Abadiano, “Fandom dynamics on Stan twitter: A grounded theory”, *Psychology and Education Journal*, vol. 58, no. 2, February 2021, pp. 9549-9562. doi: 10.17762/pae.v58i2.3728.
- [12] D. A. Laffan, “Positive psychosocial outcomes and fanhip in K-pop fans: A social identity theory perspective”, *Psychological Reports*, vol. 124, no. 5, September 2020, pp. 2272-2285, doi: 10.1177/0033294120961524.
- [13] L. Kuo, S. Perez-Garcia, L. Burke, V. Yamasaki, T. Le, “Performance, fantasy, or narrative: LGBTQ+ Asian American identity through Kpop media and fandom”, *Journal of Homosexuality*, November 2020, pp. 1-24, doi: 10.1080/00918369.2020.1815428.
- [14] B. H. Kim, K. J. Kim, I. S. Park, K. J. Lee, J. K. Kim, J. J. Hong, M. W. Lee, Y. H. Kim, I. Y. Lee, H. Y. Le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9, no. 6, December 1999, pp. 1208-1220. doi: 10.4040/jkan.1999.29.6.1208.
- [15]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Korean Edition)*, Hynmoon Publishing Co., 2004.
- [16] Y. S. Lincoln,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Inc, 1985.
- [17] Y. A. Kim,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Korean Edition)*, Korea Satir Institute, 2015.
- [18] M. Monto, G. Zgourides, R. Harris, “Empathy, self-esteem, and the adolescent sexual offender”, *Sexual Abuse*, vol. 10, no. 2, April 1998, pp. 127-140, doi: 10.1177/107906329801000205.
- [19] M. G. Coll, D. Navarro-Mateu, M. D. C. Giménez-Espert, V. J. Prado-Gascó,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Spanish adolescents: Regression vs. QCA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July 2020, pp. 16-29, doi: 10.3389/fpsyg.2020.01629.
- [20] H. Simyung,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empathy of Korea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5, October 2020, pp. 369-383, doi: 10.22143/HSS21.11.5.27.